

# 아웃도어 시장 뜬다... 산 찾는 MZ세대 잡아라

수지·아이유 등산화 인기  
장기간 집콕 지친 젊은층  
산 찾으며 형형색색 물결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집콕족의 반발 심리를 부추기는 가운데 국민연예인 수지(K2)와 아이유(블랙야크)가 동시에 아웃도어 등산화 모델로 등장하면서 여성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 전국의 산과 계곡이 여성 등산화로 형형색색 물결을 이루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는 코로나19 시대에 선방하는 패션 브랜드로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온 좋게 편승한 측면이 강하다. 거리두기 강화로 헬스장을 못 가니 산이나 밖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아웃도어 브랜드에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브랜드마다 MZ세대의 이목을 끄는 모델을 기용,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수지 광고로 눈길을 모은 아웃도어 브랜드 K2(사진)는 3월 신발부문 매출이 전년



수지 하이킹화로 불리며 인기 급상승중인 플라이하이크 큐브

동월 대비 120% 신장했으며 '플라이하이크' 시리즈는 5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지 하이킹화'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는 플라이하이크 큐브는 출시 한 달 만에 3만족 이상 팔렸다.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는 전언이다.

아이유도 블랙야크 등산화 매출 급증에 한몫 거들었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는 기능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아이유 등산화, 야크343D가 인기몰이에 나서면서 신발 라인 전체 매출이 91% 급증했다고 밝혔다. 야크 343D는 블랙야크만의 에너지 절감 기술로 탄생한 등산화로 고어텍스 소재라 무게감이 일반 등산화보다 가볍고 완벽한 방수 투습 기능으로 등산에 최적화됐다.



가볍고 완벽한 방수 투습 기능으로 등산에 최적화된 블랙야크 등산화 야크343D GTX 블랙

아웃도어 운동화 마케팅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집콕과 거리두기 유지에 실증을 느낀 MZ세대 등산 인구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며 "여기에 아웃도어 브랜드의 모델 교체, 신제품 개발 등이 어우러져 급격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등산 입문자 수요에 힘입어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의 올해 1분기 등산화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산에 취미를 붙인 MZ세대의 등산화 구매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훈 기자

## 오늘의 언박싱



시몬스 케노샤 소파

### 시몬스 침대 케노샤 소파 3종 출시

시몬스 침대가 세련된 감각의 '케노샤' 소파 3종을 새로 출시했다. 케노샤는 시몬스 침대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으로 감각적인 디자인의 베딩, 퍼니처, 프래그런스, 베스 컬렉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파넷(Farnet)은 가족과 패블릭 소재를 믹스 매치한 스타일로 트렌디한 매력이 돋보이는 소파다. 사전으로 대칭된 쿠션 패턴은 세련미를 더하는 동시에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한다.

색상은 우드톤 공간에 톤 온 톤으로 쉽게 배치할 수 있는 브라운과 거실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블루 두 가지다. 3인용 소파와 1인용 암체어 형태로 공간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

모던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인 체스퍼(Chesper)는 과감한 텍스처 원단과 핀턱(좁게 잡은 주름) 디테일이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단정한 비례감을 느끼게 하는 직사각형 등받이와 팔걸이는 어느 공간과도 조화를 이루며 편안한 착석감을 안겨준다. 3인용과 4인용 두 종류이며 여러 용도로 활용성 높은 스톨 1개가 기본 세트에 포함돼 있다.

메르테(Merte)는 가족 평상 위에 포근한 패브릭 쿠션과 월넛 무늬목 선반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으로 성질이 다른 소재와 컬러를 매칭, 인테리어 효과까지 뛰어나다.

특히, 소파 중간에 놓인 월넛 선반은 디테일을 살린 것은 물론 기능성까지 더했다. 3인용으로 브라운 색상이다.

이재훈 기자

## 루이비통 실적 대박

지난해 영업이익 177%·순이익 284% 폭증

법 개정으로 루이비통코리아가 처음으로 실적을 공개했다. 명품은 명품이었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루이비통코리아의 2020년 매출액은 1조468억원으로 2019년 7846억원 대비 33.4%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19억원으로 2019년(549억원) 대비 176.68%나 급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에서 703억원으로 284.2% 급격히 늘었다.

루이비통코리아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실적은 2011년으로 당시 매출은 4974억원이었다. 국내 패션업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감사보고서 제출로 루이비통 등 명품 업체는 유례없는



세계적인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이 지난해 한국에서 사상 최고의 영업실적과 순이익을 기록했다. 사진은 루이비통 명품 가방 네버풀 MM.

호황을 누리던 것으로 확인됐다.

루이비통코리아는 프랑스 루이비통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유한회사로 1991년 설립됐다. 그동안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지만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제출 의무가 발생했다.

이재훈 기자

## 손소독제 사고 빈발... 안전주의보

펌프형, 눈에 튄 사례 많아  
14세 이하 어린이 피해 60%

코로나로 자주 접하는 손소독제에 대한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 안전 사고는 펌프형 손소독제 사용 부주의로 많이 일어났다. 사고 유형은 안구 손상, 식물 오인 등이 많았다. 안전사고 사례가 빈발하자 제조·판매업체들이 용기 배출구 형태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안전사고가 잦은 손소독제 형태는 펌프형이다. 튼브형, 분사형은 뚜껑이 있거나 잠금장치가 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가, 건물, 매장 입구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아이 눈높이에 맞춰 펌프형 손소독제가 비치된 곳이 많다. 키 작은 아이들이 자칫 힘 조절을 못해 강하게 누르면 손소독제가 얼굴에 튄 수 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손소독제 사고가 빈발하자 사고 방지 아이디어가 잇따르고 있다. 빨대를 끼워 배출구를 아래로 향하게 한 손소독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4건)보다 17배나 늘었다. 위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 중 72.8%(40건)는 손소독제가 눈에 튄 사고였고 손소독제를 삼킨

사례도 20%(11건)나 차지했다.

눈에 튄 사례 중 60%(24건)는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 어린이였다. 어린이 눈높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튄 사례가 주를 이뤘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54.5%(6건)는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짜먹는 음료같이 생긴 손소독제를 섭취한 사례였다. 이에 펌프형 손소독제 용기의 배출구를 아래로 향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매장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가 눈에 튄 사례도 꽤 있었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펌프형 용기에 빨대를 끼워 배출구를 아래로 향하게 제작한 손소독제 사진을 공유하며 눈이나 옷에 걸 경우를 털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재훈 기자

SAMJIN 삼진제약

###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제는 필수 상비약입니다.

### 비타민 B,C가 함유된 유일한 조성의 해열진통제

# 게보린 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1-1573-0031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베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오한, 근육통, 건통(어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좌), 월경통(생리통), 위장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